

재미로 보는

그리스 로마 신화

-메두사

글 : 신화진
그림 : 박서현
이현재



목 차

● 매혹

● 미혹

● 참혹



-매혹-

메두사는 고르곤이라는
흥측한 세 자매 괴물 중 막내입니다.



고르곤들은
머리카락이 모두 무시무시한 뱀이고,
멧돼지처럼 커다란 엄니가
튀어나와있습나다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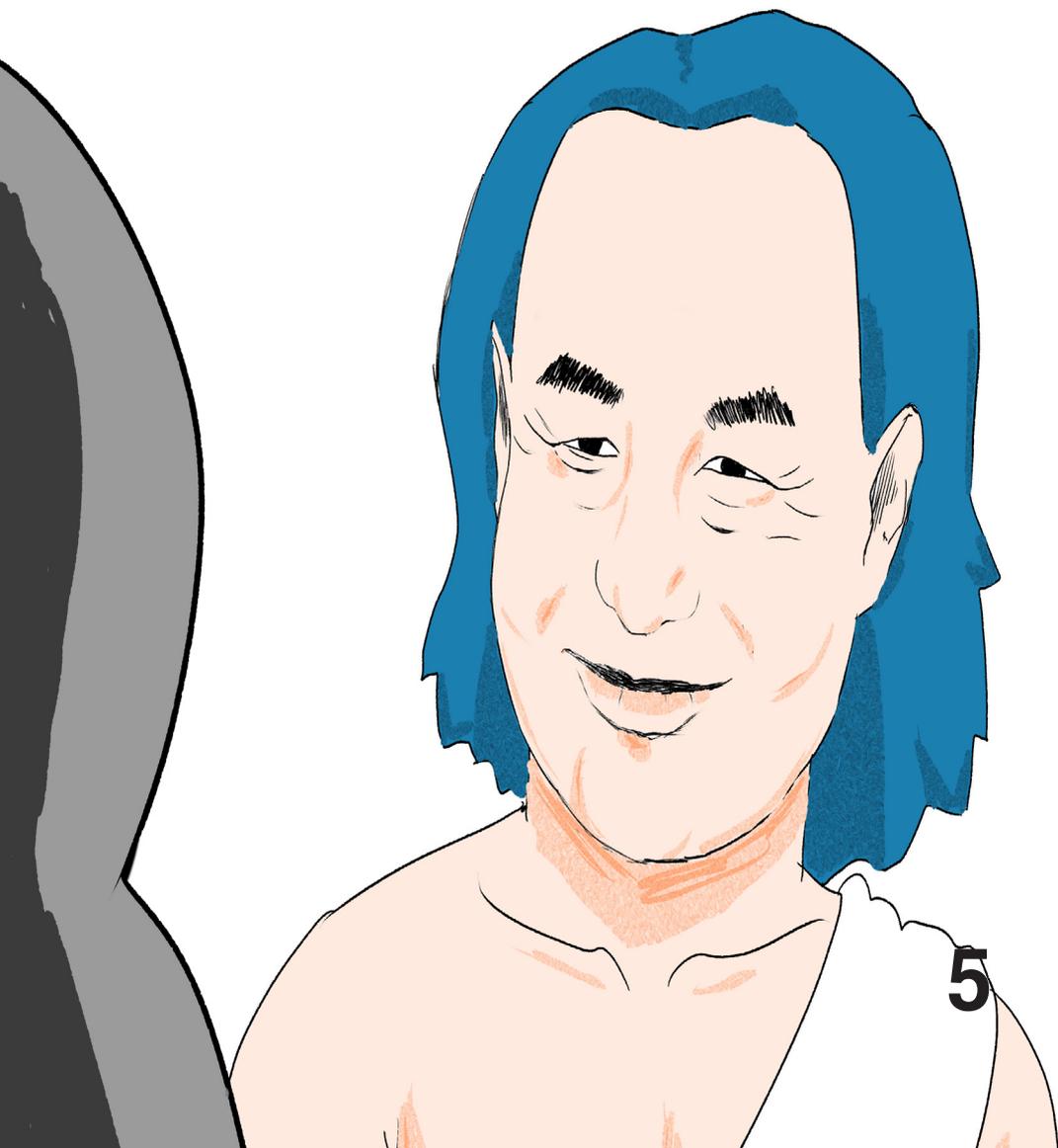
그런데 세 자매 가운데 막내인 테두사는
아주 예쁜 처녀입니다.
특히 윤기나는 머리카락이 매력적이죠.



메두사는 그걸 크게 자랑합니다.



바다의 신 포세이돈이
예쁜 테두사를 탐내봅니다.



-미혹-

포세이돈이
메두사에게 구애합니다.

“메두사 사랑해!”





“메두사 사랑해!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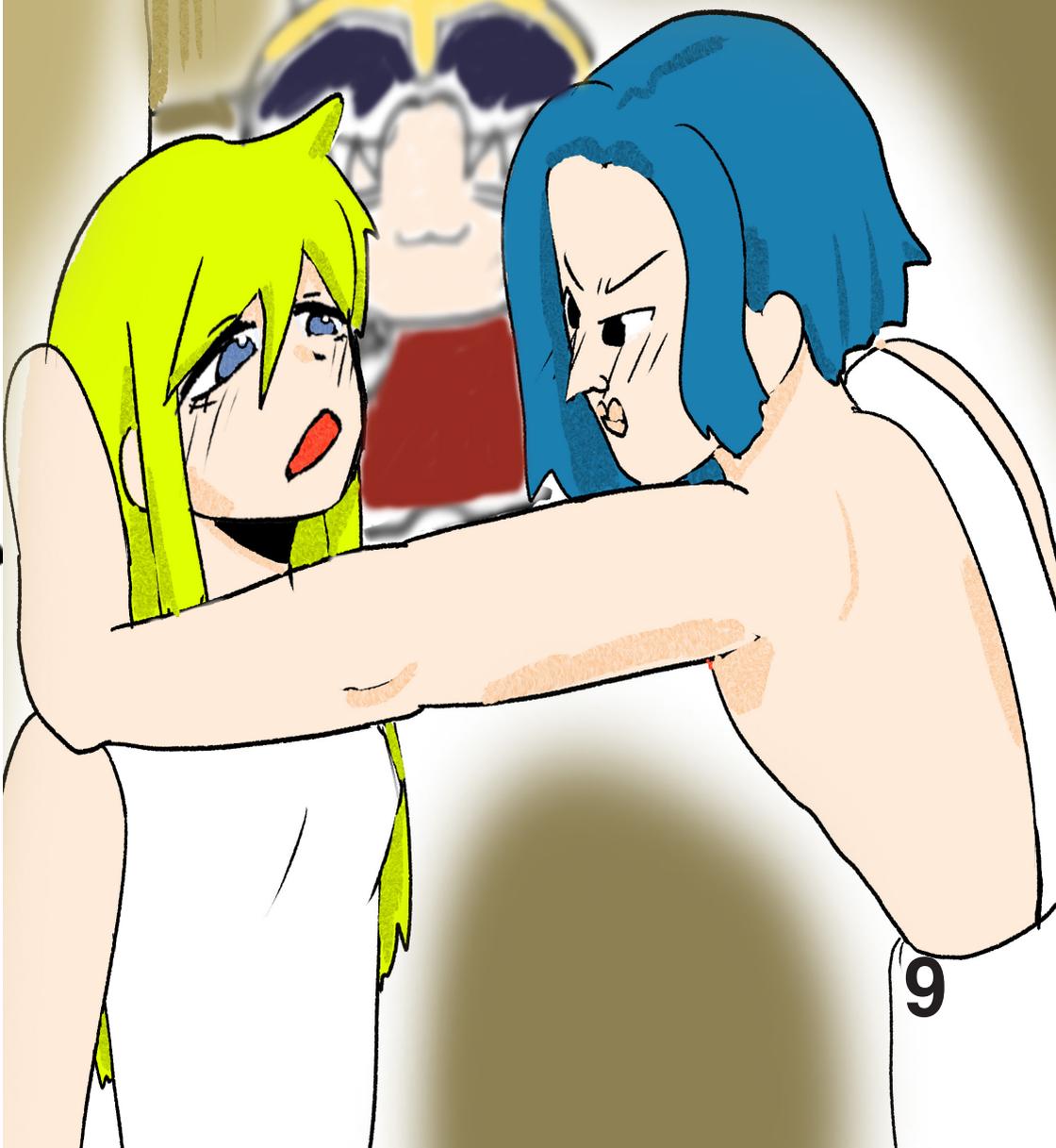
포세이돈이 메두사 뒤를
졸졸 따라다닙니다.

오 마이갓!!

컵은 메두사!



메두사와 포세이돈이
아테나 신전으로 가서 사랑을 나눕니다.



이에 아테나는 발끈합니다.

“포세이돈을
내 신전으로
유혹하다니!”



-참혹-

“감히 나와 아름다움을 겨루고,
내 신성한 신전에서 사랑을 나눠?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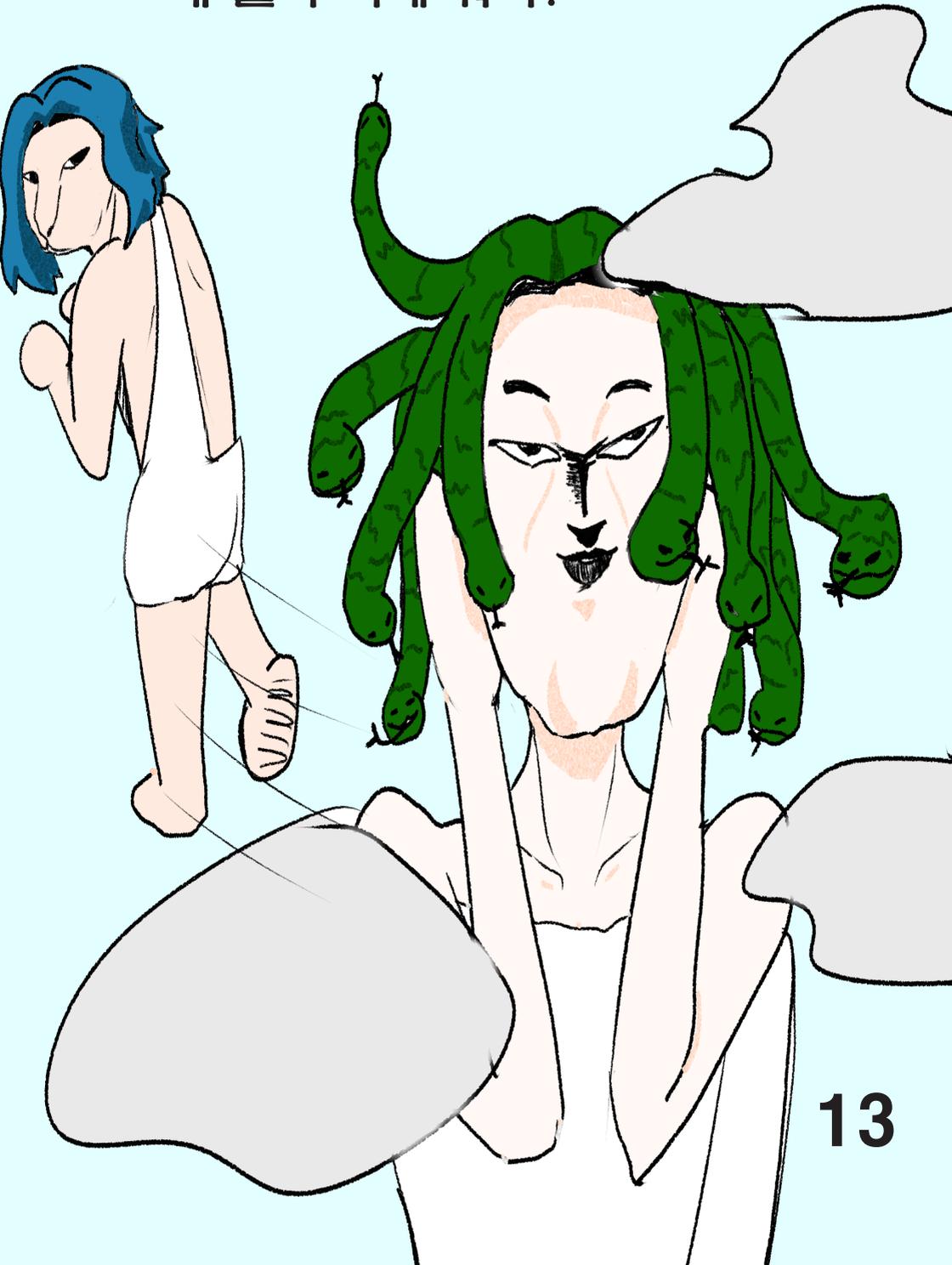


메두 끼야아아악!



“두 언니보다
더 흥측한 모습이 되어라!”

“내 곶이 이게 뭐야?”



그 뒤, 사람들이 메두사의 얼굴을 보면
피가 얼어붙고 돌로 변합니다.



“꼭 메두사의
머리를 베어다
선물로 드리겠습니다!”

이를 해결하기 위해
페르세우스가
분명히 말합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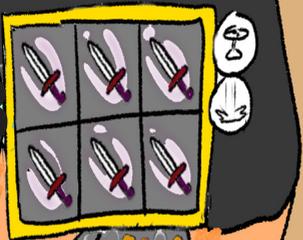
“아 저 섬이로구나.”

섬에는 메두사를 보고
돌로 변한 사람들이
많이 있었습니다.



페르세우스가 청동방패로 앞쪽
을 비춰 보면서 걸어갑니다.
이 방패는 페르세우스가
메두사의 얼굴을 보고
돌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.

30m 직진 후
우회전입니다.



76.8



마침내 잠들어 있는
고르곤들의 흉측한 모습이
방패에 비춰집니다.



“찾았다! 메두사다!”

페르세우스가 방패에 비친
메두사에게 다가가, 칼로 단번에
목을 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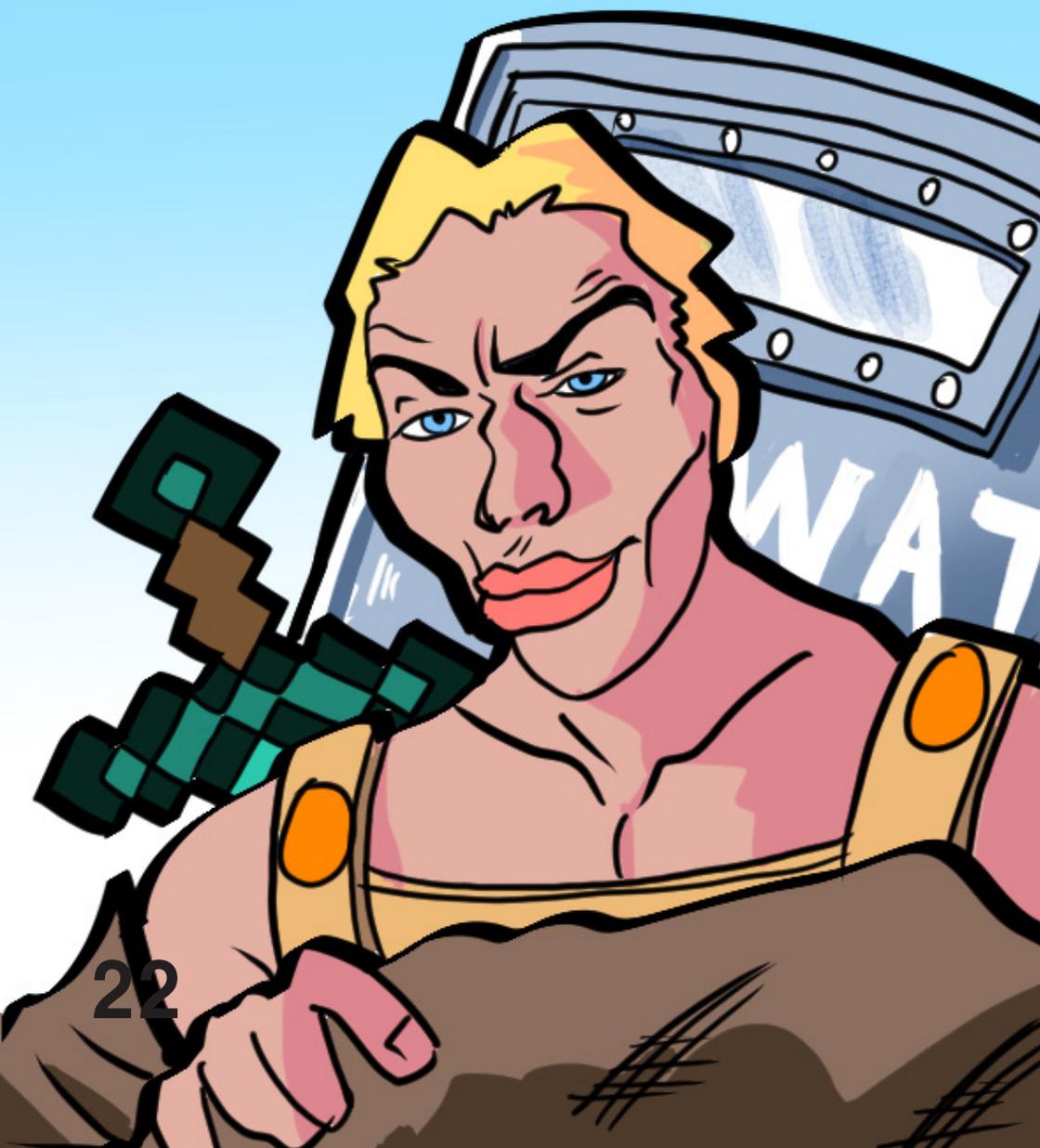
잠에서 깨 갠 고르곤 언니 둘이
머리가 잘린 메두사의 모습을 보고
깜짝 놀랍니다.

“앗, 메두사,
메두사가...”

“머리가 없어..!”



페르세우스는
뿌듯해합니다.



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가 담긴
자루와 함께 뛰어 갑니다.

